“불교 경제활동, 비윤리적이지 않다”

킨 쳉 교수 언론 기고문 통해
‘불교 경제 윤리적 의미’ 강조

박정현 객원기자

대만의 사찰 ‘포광산’ 내에 위치한 ‘스타벅스’와 ‘7-Eleven’을 본 후 불교와 자본주의의 관계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게 된 한 전문가의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 “불교인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에 대해 단순히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다”는 그의 연구는 불교의 전통적 가치와 현대 자본주의가 결합하는 복잡한 양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

홍콩 출신으로 미국 모라비안 대학에서 동아시아 및 남아시아 종교를 가르치는 킨 쳉(Kin Cheung) 교수는 3월 4일 불교 온라인 매체 부디스트도어(Buddhist door) 기고문을 통해 “불교인의 경제적 참여가 비윤리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쳉 교수는 중국의 ‘사대 불교 명산’(구화산·보타산·오대산·아미산)이 운영하는 불교 관광 회사들이 주식 시장에 상장된 사례를 들며, 불교가 자본주의 경제에 참여하는 방식을 설명한다. 아미산 관광 주식회사는 1997년에 상장되어 증권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이 회사는 불교와 경제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쳉 교수는 “이러한 기업들은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부를 축적하면서 불교의 교리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불교의 상업적 진화와 자본주의적 경영 방식을 통한 사회적 기여라는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불교가 자본주의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테면 승려나 사찰이 화석 연료 회사와 같은 환경에 해로운 기업에 투자할 경우 불교적 가르침에 반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쳉 교수는 “기업의 선택과 투자자의 의도가 중요한 윤리적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투자자가 선택한 기업이 사회적·환경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여부가 불교인의 경제적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대만의 불교 지도자이자 포광산의 창립자인 승언 스님의 가르침과도 일치한다. 승언 스님은 자본주의의 탐욕을 비판하면서도, 자본주의가 부유한 사회를 만들고 이를 통해 불교 활동을 확장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승언 스님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교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 “불교가 경제적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반드시 윤리적이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그 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쳉 교수는 “불교인들이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익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라며 “불교 사찰이 운영하는 교육기관, 병원, 자선 활동 등 다양한 사회적 기여를 통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를 축적하고 이를 사회에 환원하는 방식 등이 있다”고 역설했다.

베트남 롱안성 불교계, 구족계 수계산림 봉행

비구 · 비구니 358명 수계
계율 특성 교육에 중점둬


롱안성에서 열린 수계산림 모습.
사진출처=베트남뉴스

베트남 남부 경제의 중심지로 유명한 롱안성에서 구족계 수계산림이 열렸다. 베트남 현지 언론들은 지난 2월 28일부터 나흘간 봉행된 수계산림에 대해 특별보도 했다.

이번 수계산림은 롱안성 컨저옥현에 소재한 팝민사와 후아빈사에서 봉행됐으며 비구, 비구니를 합쳐 358명의 수계자가 계단에 올랐다. 수계산림의 전계대화상은 베트남 불교 승가(VBS) 집행위원회 의작인 틱 티엔논 스님이 맡았다. 산림 중에는 수계자들을 위한 계율 강의가 진행 됐으며 특히 율사로 유명한 투엔 루앗수 스님이 〈계율의 지범계차〉에 대한 설명했다.

수계산림측은 비구와 비구니가 함께 수계하는 단일 계단인 만큼 두 승단의 계율적 특성을 교육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비구, 비구니 율사스님들을 초청하여 계를 받는 것, 계를 배우는 것, 계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하여 3회에 걸쳐 강의를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수계자들이 계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현재, 베트남 불교 승가에 등록된 롱안성의 사찰은 총 320개소, 포교당, 인법당과 같은 신행활동 거점은 28개소로 출가자는 1586명(비구 사미 728명, 비구니 사미니 858명)도 집계되고 있다. 롱안성 내의 불교계의 활동과 세력은 점차 증가하고 있어 현재 13개소의 선방 및 안거센터가 설립됐고 재가자들을 위한 불교대학 혹은 수행과정을 운영하는 사찰은 300대소가 넘는다. 롱안성 측은 “현재 롱안성의 불교계가 사회자선활동을 위해 내는 기부금이 연간 1000억동(한화 약 57억 3천만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수계산림 개회식에서 참석한 롱안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인 팜탄호아는 “롱안성의 행정부를 대표하여 불교계의 발전을 위해 성 차원에서 좋은 조건을 끊임없이 만들어 내고, 다른 종교단체나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번영, 단결,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사회를 구축할 것이다. 이 수계산림은 불교의 가치를 발전시키고 전파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이며, 미래 세대가 계속 지켜나가야 할 모범”이라고 축사를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스리랑카 불교계, 교황 위한 기도회 열어

교황의 빠른 회복 기원 · 격려 메시지
불단공양 · 사진 앞 꽃 올리기도


프란치스코 교황을 위해 기도하는 스님들.
사진출처=카톨릭헤럴드

프란치스코 교황이 호흡기 감염과 양쪽 폐에 발생한 폐렴으로 중태에 빠져 병원에 입원한 가운데, 전 세계의 다양한 종교에서 교황의 회복을 위한 기도와 격려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다. 지난 2월 25일 스리랑카 불교계는 스리랑카 가톨릭계와 함께 프란치스코 교황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했다.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의 마하보디 불교 공동체의 아그라쉬라바카 사원에서 봉행된 기도회는 불교계가 자발적으로 봉행을 결정했으며 스리랑카 주교회의 소통부 사무국장인 주드 크리샨타 페르난도 신부와 다른 두명의 가톨릭 신자가 함께 참석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월 14일 기관지염 치료를 위해 로마 제멜리 병원에 입원했고, 그 후 다중미생물성 호흡기 감염과 양쪽 폐에 폐렴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한때 중태에 빠졌다고도 전했으나 교황청은 “천천히 회복 중이며, 업무에 어느정도 복귀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기도회가 봉행된 아그라쉬라바카 사원은 2015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문한 바 있다. 당시 교황은 스리랑카 방문의 마지막 날에 일정을 변경하여 사원을 방문했으며, 사원에 봉안된 불사리와 목련, 사리불 두 존자의 사리에 예를 표했다. 교황의 방문을 기념하여 당시 아그라쉬라바카 사원은 1년에 한 번만 공개되는 사리들을 특별히 교황에게 공개했고, 교황은 현지 불교예법에 따라 맨발로 사원을 방문했다. 이로써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이어 역사상 공식적으로 불교사원을 방문한 2번째 교황이 됐다.

기도회 동안 불단에는 교황 방문 당시의 사진이 걸렸으며 스님들은 불단에 먼저 공양을 올리고서 교황의 사진 앞에 꽃과 초를 올리고 그의 빠른 회복과 건강을 기원했다. 기도회에 참석한 페르난도 신부는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의 재임기간 내내 종교 간의 교류를 교황직의 초석으로 삼았다”면서 “스리랑카 불교계가 먼저 자발적으로 교황의 회복을 위한 기도회를 봉행하고 우리를 초청한 것에 매우 감동했다”고 감사 인사했다. 이어 “모든 종교와 사람들에게 진지한 형제애로 다가간 프란치스코 교황의 노력이 불교도와 다른 신앙 공동체들과의 관계에서 유익한 방향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태국, 불교 공휴일에 주류 판매 전격 검토

관광객 유치 일환…오후 2~5시 완화
보건부 장관 인증 · 총리 절차 후 확정


방콕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 중 하나인 카오산 로드에 사람들이 몰려 있다. 자료사진.
사진출처=방콕포스트

태국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오는 5월 비사카 부차일(Visakha Bucha: 부처님의 출생·깨달음·열반을 기념하는 날로 태국에서 가장 중요한 불교 공휴일)에 주류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태국 정부는 비사카 부차일에 모든 편의점과 유흥 주점 등에서 모든 종류의 주류 판매를 금지해 왔다.

방콕포스트의 3월 4일 보도에 따르면, 태국 정부의 주류음료관리위원회는 최근 비사카 부차 기간 일부 장소에서 제한적으로 주류 판매를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판매가 허용될 장소는 국제공항, 야간 유흥업소, 호텔, 관광 명소와 국가적 행사 장소 등이다.

앞서 지난달 파에통타른 시나와트란 총리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의 주류 판매 금지를 완화하라는 자영업자단체들의 요구에 따라 금지 조치를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총리는 불교 공휴일 기간 주류 판매 금지 조치가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재검토하라고도 관계 당국에 요청했다.

주류음료관리위원회의 이같은 권고에 따라 해당 안건은 앞으로 15일간 공청회를 거친 후 보건부 장관의 인증과 총리 승인 절차를 받으면 확정된다.

박정현 기자



사찰 편백나무 맞춤가구 전문점
스님 건강, ‘편백가구’로 지킨다
편백(히노끼)나무 효능
편백나무는 항균효과가 뛰어나 세균번식에
가장 취약한 목욕 욕조를 비롯하여
인테리어 용품, 주거용 목재, 침대 등 가구소재로 주로 사용된다.
특유의 향으로 인해 정신을 맑게 하는데 이는 피톤치드 때문이다.
편백나무는 일반나무보다 5.5배 가량 피톤치드가 많아
삼림욕을 하면 심신이 안정된다.
편백 온열 그래핀보료
신체 기(氣, Energy)를 충전하고 균형을 바로 잡는 초장파 에너지
건강하고 오래사는 것은 인류의 오랜 소망
지친 몸과 스트레스를 수면과 함께 깔끔하게 해결하세요.
• 피로 회복
• 근육 결림 해결
• 혈액 순환 개선
• 신경통, 근육통 완화
• 만성 피로 해소
편백침대
숙면이 보약
편백 숯침대
FINE TERRA
규조토 비누
‘FINE TERRA’
절찬 판매
판촉용 대량구매시
70% 할인
향긋함과 함께~
기다려지는 세안~~~
알파토 규조토 soap
민감성 피부에 도움
그 린 에 너 지
GREEN ENERGY COMPANY
제품문의 031-5 4 2-2735
010-3576-6802
계 좌 : 농협 1186-02-058581
예금주 : 그린에너지(이도연)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319-16 (무봉로 15)
전제품 국내산